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2. 12.(월) 10:30 ~ 11:40, 본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4명

당연직위원(7명): 김진식, 오기환, 이희숙, 임복, 이만형, ~~홍수동~~ ~~김일화~~

- 일반직위원(7명): 최현호 위원장, 이종대, 유정우, 채현숙, 김종서,

박제세, 정삼균

- 불참위원(1명): 오원근위원

※ 배석(3명): 신광수(간사, 재무과장), 정진혁(재무1팀장), 신선영(재무과 예산)

□ 심의·의결 안건 및 결과

○ 2018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 의결

○ 충북대학교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18-2021)

- 원안 의결

○ 기타: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및 대학회계 직원 총정원 관련 사항

- 원안 의결

붙임: 2018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7 4 NE

8

17/11/19

2018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 2. 12.(월) 10:30 ~ 11:40

2. 장소 : 본부 5층 회의실

3. 참석인원 : 14명

- 당연직위원(7명) : 김진식위원, 오기완위원, 이희숙위원, 임복위원, 이만형위원,
11/10/10 / 우수동위원, 김일화위원 3/1/17/3

- 일반직위원(7명): 최현호 위원장, 이종대위원, 유정우위원, 채현숙위원, 김종서위원,
박제세위원, 정삼균위원

- 불참위원(1명) : 오원근위원

※ 배석자(3명): 신광수(간사, 재무과장), 정진혁(재무1팀장), 신선영(재무과 예산담당)

5. 심의 안건

- 2018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안)
- 충북대학교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18-2021)
- 기타: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및 대학회계 직원 총정원 관련 사항

6. 회의내용

- 위원장: 인사말씀,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재적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개회 선언

위원 변동에 따라 총학생회장 김종서 위원 및 총학생회 부회장 박제세 위원 소개
법 제9조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조항에 대해 정하고 회의 진행.

이 회의록에 서명할 간(間)서명 위원을 3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전 회의에서 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이 서명을 하였음.

이번 회의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함. 학생 김종서 위원, 직원 채현숙
위원, 교수 이종대 위원이 간(間)서명 위원으로 의결.

개인의 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5 4 4 4

F

VI 214

안전심의를 실시하겠음.

제1호 안전으로 2018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상정함.

- 간사·재무1팀장: 안전 설명
- 위원장: 총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많은데 복잡하고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임. 반드시 반영해야할 예산이 약 38억 정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이 국책사업에서 충당 가능한 것인지 궁금
- 간사: 총장님 이하 기획처장님과 학내 구성원들이 국책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 이종대 위원: 대학 재정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재무과의 노력을 잘 알고 있음. 다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음

첫 번째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함.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매나 시설 환경 개선시 기부금 재원을 발굴하는 등 대학 본부의 노력이 필요함. 재정 규모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함. 두 번째로 총 예산규모가 772억 정도인데, 산단이나 발전기금 재단 전입금 예산이 확대되었음. 좋게 본다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쁘게 본다면 제살 깎아 먹거나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특히 산단에서 교수들의 연구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연구비를 많이 확보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년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특히 단과대학 교육환경이나 시설물 등 보수를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하여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함. 오송역 북카페, RC교육, 교육 연구정보센터 개관 등과 같은 사업도 우리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순위로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취사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봄.

무기계약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올해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무과에서는 내년, 후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여 준비해야

26 75

57

176 W

한다고 제안함.

- 위원장: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 재무과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주기 바람.
- 유정우 위원: 우리 대학의 코러스 분담금이 약 2억 정도 인데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각 대학에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대학 노조에서는 대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음. 학교 내에서도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대학 정문과 도서관 사이 가로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사업의 재원에 대해 알고 싶음. 또한 교육연구정보센터 완공 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들은바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이 대학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함
- 재무1팀장: 시설환경개선비로 15억 정도 반영되어 있음. 이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은 ~~시설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차후 기획처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이종대 위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추진될 수 있으나 논의 없이 설계나 공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학내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이만형 위원: 당초 설계 시 교육연구정보센터 완공과 차로개선 추진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었음.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학내 교통전문가 T/F가 학술용역으로 조사한 바 있음.
- 위원장: 학교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김종서 위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재정위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학생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건물 내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부분, 예산의 투명성,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 사용 부분으로 응답하고 있음.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정책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장: 예산 편성시 학생도 중요한 학내 구성원의 하나이므로 학생 대표와 사전에

5. 46 WE

8 F

11 2/11

충분히 논의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재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위해 특히 2018년 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하였음. 재정 상황 공개를 현재 홈페이지에서 대학신문 등까지 확대하고 매체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유정우 위원: 대학회계직 인건비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봄. '증액분만 반영하되, 단체 협약에 따라 증감이 있을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예산 조정'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부분으로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겠음
- 박제세 위원: 학생교류 및 기타행사 추진 사업이 올해 1.8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17학년도 경우 비상대책위 체제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었음. '16학년도 경우 1.95억원이 집행되었음. 제작년 대비 예산 감액이 많이 학생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문화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 더 확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올해 국책사업 확보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 이만형, 위원: 국책사업으로 크게 늘어날 여지는 없음. 다만 최대한 노력하여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학생대표가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추경이 된다면 그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학생복지 및 환경 개선 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력이 있어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우수동 위원: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없음. 다만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산단의 간접비 지출의 경우 과기정통부 감독하에 있고, 대학에 직접 지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가능한 이러한 표현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산 내역 안 '산단 대응자금'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국책사업 대응자금'과 산학연구본부로 부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 재무1팀장: 예산 편성 시 타회계 전입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국책사업 대응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음
- 박제세 위원: 학생회 예산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에서 반영하되 예비비에도 반영

5月21日

27

11月10

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 간사: 회의록에 명시한 부분으로 추경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김일화 위원: 회의 자료에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은 2016학년도 결산액을 전액 반영한다고 표현되어 있음. 금액 등을 확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진식 위원: 아직 2017학년도 결산액이 미확정된 상태임
- 재무1팀장: 법령 28조와 시행규칙 22조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액을 따르도록 명시 하였으며, 교육부 지침상 컨설팅과 협의사항을 반영 하도록 되어 있음. '17학년도 결산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16학년도 결산액을 반영하는 것이며 차후 컨설팅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김종서 위원: 올해 구 학생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1학기에는 구 약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장: 본 사안은 학생처장님과 먼저 협의 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의견이 있을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2018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의결함. 다만 국책사업과 관련한 우선반영 요구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충북대학교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18-2021)'을 상정하겠음
- 재무1팀장: 안건 설명
- 위원장: 향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충북대학교 중기재정운용계획(안)(2018-2021)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의결함.
다음 기타 사항인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및 대학회계 직원 총정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 재무1팀장: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및 대학회계 직원 총정원 관련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보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장: 종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변동이 없는 것인지
- 재무팀장: 변동사항이 없음
- 위원장: 현행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본 안건 이외의 대학 발전 등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5. 12. 12

f

12. 12. 12

- 김종서 위원: 올해 총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여기 계신 위원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희숙 위원: 학생처에서도 학생회에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이것으로 ~~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 / - \$

